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문화 콘텐츠 株 100억 클럽 100명... BTS멤버 전원 진입 3명 중 1명 하이브 주주... "미디어+엔터 산업 강세 계속"

문화 콘텐츠 관련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주주가 3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분의 1은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 모두 '100억 클럽'에 가입했다. 특히 '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23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5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관련 주식종목 중 주식평가액이 100억 원 넘는 개인주주는 모두 34명(1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들 34명의 전체 주식재산 규모는 총 4조1174억 원이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상장사 중 영화·음반·

드라마·웹툰·웹소설 등 문화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다. 게임·캐리타오토크·여행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주식평가액은 10일 보통주 증가 기준(우선주 제외)이고 1개 종목에서 보유한 주식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전체의 61.5%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규모는 2조5684억 원으로 계산됐다. 나머지 33명의 주식재산을 모두 더한 1조6090억 원(38.5%)보다 큰 규모다.

전(全)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정외선 현대차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방 의장은 동종업계 내 2·3위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방 의장의 주식재산 규모는 2위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 총괄 책임자(CCO·3959억 원)보다 6.5배 컸고 3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창업자(1657억 원)보다는 15.5배 많았다.

조(兆) 단위 주식가치를 보유했지만 1년여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방 의장은 소속그룹 BTS의 인기 등에 힘입어 2021년 11월 중순 5조4446억 원을 넘겼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지난해 10월 중순 1조4400억 원으로 떨어지는 쓴맛을 봤다. 최근에는 2조5000억 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방 의장이 현재 보유한 주식 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하이브의 1주당 가치가 22만8113 원을 넘기면 방 의장의 주식재산은 3조 원대로 재진입하게 된다. 하이브의 14일 기준 주가는 20만2000원이다.

방 의장 외에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 10명이 주식재산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00억 클럽'에 들어간 전체 조사 대상(34명) 중 32.4%에 달했다.

두 번째로 높은 주식평가액을 보유한 개인주주는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90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신규 메니지먼트총괄(CAMO·171억 원)은 세 번째로 높았다. 윤석준 전 하이브 아메리카 CEO(117억 원)도 '100억 클럽' 상위에 속했다.

나머지 7명은 BTS 멤버들이었다. 민윤기(활동명 슈가)·박지민(지민)·김태형(뷔)·전정국(정국)은 모두 6만8385주를 보유하며 10일 기준 주식가치 133억 원을 기록했다. 정호석(제이홉)은 6만2784주를 보유해 122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어 김남준(RM)과 김석진(진)은 각각 113억 원·102억 원을 기록하며 주식평가액 100억 원을 가볍히 넘어섰다. 한편 10억~100

억 원 주식평가액을 놓고 보면 SM엔터테인먼트가 11명의 주주를 포함시켜 가장 많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통신과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상호 융합하는 이른바 '타임(TIME)' 산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뜨거워진 감자로 떠오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분 분쟁 역시 글로벌 콘텐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포털 업체와 엔터테인먼트가 연합 전선을 이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각 변동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소장은 "투자자 못지않게 가수·배우·창작자와 제작자 등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달릴까 말까
(2.15 공시)

- ▶HJ중공업[097230] 562억 원 규모 청호동 엘지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 ▶S-에너지화학[00236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8억 원... 전년비 983.3%↑
-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814억 원... 전년비 33.5%↑
- ▶경농[00210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409억 원... 전년비 144.3%↑
- ▶피에스텍[002230] 주당 200원 현금 배당 결정... 배당금총액 34억 원
- ▶빅텍[065450] 145억 원 규모 폴란드 K2 전자 FCS 열상유닛 수주
- ▶파라다이스[03423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04억 원... 전년비 흑자 전환
- ▶티엘비[35686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385억 원... 전년비 187.5%↑
- ▶포커스에이치엔에스[331380] 지난해 개별 영업이익 27억 원... 전년비 35.1%↑
- ▶프리오전[321260]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31억 원... 전년비 53.0%↑

한국투자증권 "은행 업종 비중 확대해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피력 최선호주 '하나금융지주' 전망

한국투자증권이 은행업에 대해 호실적과 주주환원 확대에 주목하면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중장기 자본정책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리레이팅(재평가)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시중은행 주주환원율이 33~35%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주환원율은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은행업 지수(KRX 은행)는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으로 1월 한 달간 14.5%p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점인 지난달 26일 기준으로는 21.6%p나 치솟았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주주환원정책 발표 전후 차익 실현과 예상을 하회하는 작년 4분기 실적으로 은행업 지수는 14일 기준 전월 말 대비 3.9%p 하락하며 주춤 상황이다.

이처럼 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권 호실적으로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지속되고, 선제적인 손실흡수력 제고 노력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라며 "특히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리레이팅(재평가)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초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대치 또는 그 이상의 환원정책을 실제로 실현해 불확실성을 축소하면서 주가 리레이팅을 이룰 수 있는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건부식 자본정책 발표를 통해 수익 전망에 따라 자본비율 및 주주환원율을 추정하기 용이해졌다는 평가도 내렸다. 호실적과 이에 따른 자본여력 확대를 바탕으로 2023년 주주환원율은 시중은행 33~35%·지방은행 28~29%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두산 연구원은 "최(最)선호주는 하나금융지주고, 주주환원율은 2022년 26.9%에서 2023년 32.8%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국부펀드 KIC 작년에만 38조 원 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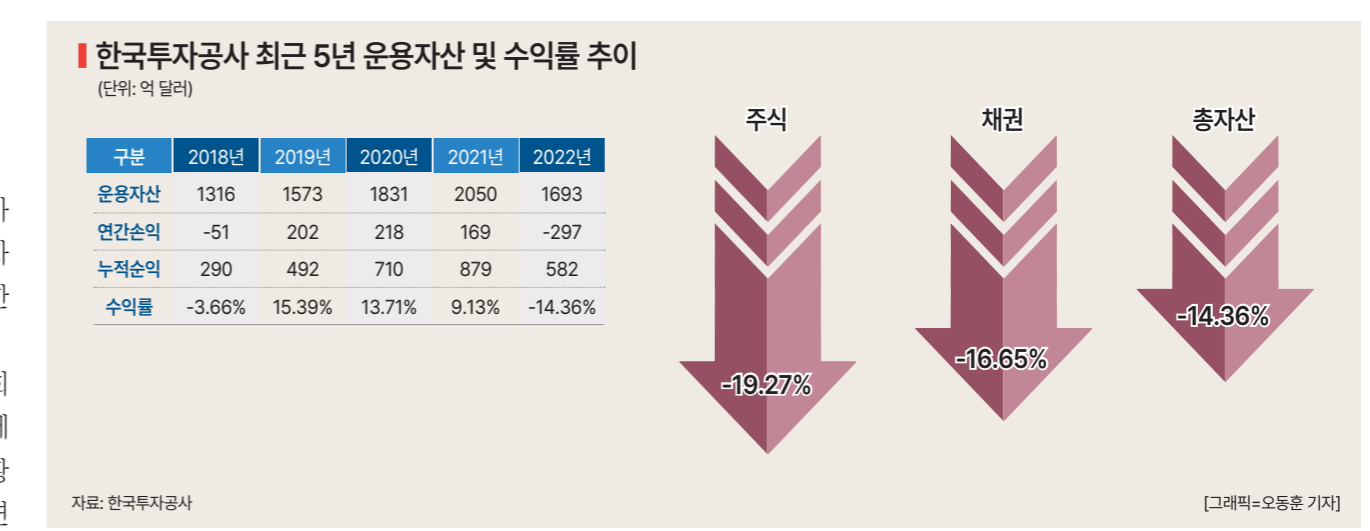
년 총자산수익률 -14.36% 주식투자 손실 20% 달해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38조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수익률은 -14.36%로 부진했다.

1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한국투자공사 투자현황 및 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KIC의 연간 투자손익은 -297억 달러(한화 -38조 원)로 전년(169억 달러)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누적 투자손익도 879억 달러(약 104조6000억 원)에서 582억 달러(약 73조8000억 원)로 급감했다. 설립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4.12%로 1년 전(5.47%)보다 1.35%p 떨어졌다.

KIC는 2005년 '국부의 효율적 증대'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국부펀드다. KIC는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과 헤지펀드·사모펀



드 등 대체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kKIC 전통자산 수익률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총자산 수익률은 -14.36%를 기록했는데 전통자산 전체 수익률은 -17.58%에 그쳤다. 주식과 채권은 각각 -19.27%·-16.65%의 수익률을 올렸다. 전통자산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환산 수익률은 2.10%를 기록했다. 주식과 채권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5.65%·-1.51%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자산의 경우 자산별로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헤지펀드가 4.78%, 사모주식과 부동산 인프라가 각각 14.65%·7.58%를 기록해 전통자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KIC의 자산배분 현황은 작년 12월 말 기준 △주식 38.3% △채권 31.5% △대체자산 29.9% △기타 7.3%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2021년과 비교해 각각 2.3%p·3.4%p 감소했다. 대체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7.5%에서 2022년 22.9%

로 1년 사이 5.4%p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KIC의 설립목적은 정부와 한국은행·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KIC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등 과연 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대한민국 으랏차차

치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약!**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